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8 May 2015 (afternoon)
Vendredi 8 mai 2015 (après-midi)
Viernes 8 de mayo de 2015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공모

①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아 법무부, 안전행정부,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공동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소중한 이야기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재한외국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 ② □ 대상: 국민 또는 재한외국인
- ③ □ **[-X-]:** 생활체험 수기
 •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외국적동포
 • 외국인 지원 관련 민간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 결혼이민자 멘토, 후원자 등
- ④ □ **[-3-]**
 • 공모기간: 2013. 3. 25 (월) ~ 4. 15 (월)
 • 1차 예심: 2013. 4. 23 (화)
 • 최종발표: 2013. 5. 3 (금),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
- ⑤ □ **[-4-]**
 • 홈페이지 접수
 -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 (www.togetherday.kr)
 • 우편 접수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생활수기 공모 담당자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9 과천 N/C 백화점 8층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생활수기 공모 담당자
 - 서울시 종로구 55 정부중앙청사 1210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업지원부 생활수기 공모 담당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27

- ⑥ □ **[- 5 -]**
- | | |
|---------------------------|--|
| 유학생, 근로자, 외국적 동포
(13명) | 각 분야: 최우수상 (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
장려상 (10명, 상금 30만원) |
| 결혼 이민자 (13명) | |
| 자원 봉사자, 멘토 후원자
(13명) | |
- ⑦ □ 응모 요령
- 분량: 한국어, A4용지 3-5매 이내 (신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 제목, 작성자 성명, 주소, 연락처 반드시 기재
- ⑧ □ 유의사항
-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내용은 응모할 수 없음
 - 응모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입상작의 저작권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귀속됨

대한민국 법무부, www.moj.go.kr (2013)

본문 B

큐레이션 서비스 뜬다

내가 고른 콘텐츠만 골라 재구성

5 “핀터레스트”는 최근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3대 소셜네트워크로 급부상하여 세계 미디어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핀터레스트는 이용자의 관심사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추천해 주고, 이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 “핀을 꽂아” (pin-it) 관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다. 다른 이용자와도 이런 관심사들을 쉽게 나눌 수 있다. 국내에도 꽤 알려진 “플립보드”도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취향에 맞춰 배치해주는 서비스다.

10 인터넷 정보의 홍수속에 이용자에게 맞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뜨고 있다. 큐레이션은 원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작품을 배치하고 동선을 설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소셜네트워크의 큐레이션 개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관점이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추려내 배치하고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15 “큐레이션” 개념은 뉴스 유통에도 적극 사용되고 있다. 과거 “아르에스에스(RSS)”가 각종 매체의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맞게 제공하는 시대를 열었다. 그 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같은 소셜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의 관점이나 취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뉴스큐레이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핀터레스트가 폭넓은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플립보드는 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5 “페이퍼리”(paper.li)도 “뉴스큐레이션” 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다. 관심영역을 지정하면 그에 맞는 기사나 블로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준다. 또 이용자는 뉴스에 자신의 말을 덧붙여 새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스토리파이”(storify.com)는 편집능력을 더 보강한 서비스다. 수집한 뉴스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게 해준다.

30 전통 매체들도 뉴스큐레이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뉴욕타임스>는 2011년 “뉴스닷미”(news.me)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개인 맞춤형 뉴스들을 “일간브리핑”으로 보내준다. <시엔엔>(CNN)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자신만의 잡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인 “자이트”를 사들였다.

35 국내에도 뉴스큐레이션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에디토이”(editoy.com)는 온라인 콘텐츠들을 취향대로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페이스북이 기반인 “뉴스캐스터”는 사회 고발성 뉴스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다.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도 뉴스큐레이션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원형, 한겨레 (2013)에서 각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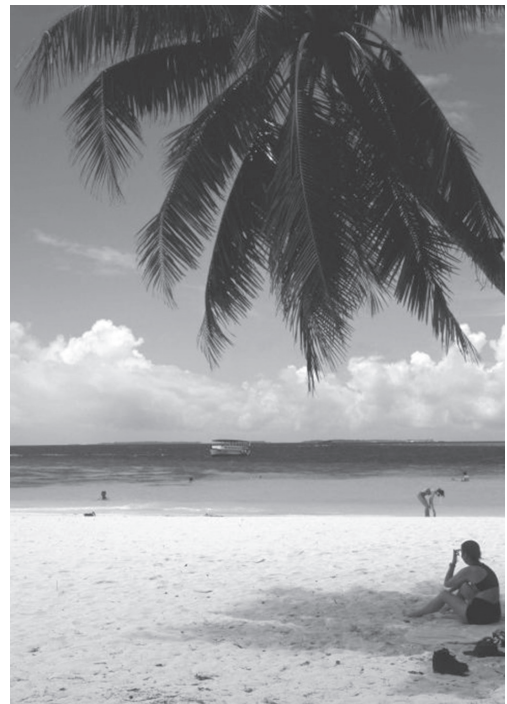
본문 C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지구촌의 명소들

5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지구촌 곳곳에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관광지 및 명소가 기후 변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까요?

10 호주의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골드코스트 해변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백사장 유실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언론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이 현상으로 인해 전체 모래의 30% 이상이 과도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백사장이 없어지는 일은 40

15 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골드코스트시 사람들이 복구작업에 한창이지만, 이같은 백사장 유실현상은 지역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요 백사장을 복구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모래를 퍼다 나르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5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에베레스트 등반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세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8,850m 정상을 20차례나 등반한 한 세파는, 빙하와 눈이 녹아 불어난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등반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바위들이 드러나는데 노출된 바위표면은 아이젠 사용을 힘들게하기 때문에 추락위험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런던 대학은 히말라야 빙하가 연간 10-60m의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환경학자는 히말라야 해빙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녹아내린 에베레스트 빙하가 고여 만들어진 호수 1km를 수영해 건넜습니다.



35 우리나라의 많은 신혼 부부들이 신혼
 여행지로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한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섬, 바로 몰디브입니다.
 40 지상낙원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명소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없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몰디브는 땅과 해수면 높이에
 차이가 별로 없는 국가인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더 높아지면서
 45 국토가 해수면에서 2m 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태로 계속 나빠질
 경우에는 수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몰디브 국가내에서는 많은 대책들이
 50 나오고 있는데, 몰디브 정부에서는
 관광수입으로 약 40만 명이 거주할 새로운
 국토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0
 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5 지금까지 기후 변화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할 명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한 곳은 골드코스트, 에베레스트, 몰디브 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지구의 환경을 지켜준다면 이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그린스타트 (2013)에서 각색됨

본문 D

<기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 KBS¹ 이재강 국제부 기자와 청소년 방송단 팀의 인터뷰

① 방송기자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제가 방송기자를 20년을 했는데, 그 매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핫한 이슈 현장에 직접 가서 보도한다는 것과 역사의 현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② SNS² 1인 미디어의 발전에 대한 생각과 SNS에 대비해 방송이 보완할 점이 있다면?

- SNS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혁명을 가져온 미디어 매체예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더 커질 것이고 결국 뉴스의 흐름을 바꿀 겁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 방송은 전문화된 심도 있는 취재로 SNS와 차별화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③ [- X -]

- 제가 기자가 되고 싶었던 계기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막연히 꿈꾸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 대학 방송반에서 기자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진짜 기자가 돼서 뉴스현장을 직접 다니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언론고시를 봐서 기자가 되었어요.

④ [- 34 -]

- 그게 가능하다면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요. 여행 작가라는 직업은 자신이 가고 싶은 데를 가면서 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에 비해 생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되고 싶기도 해요. 만약 진짜 여행 작가가 된다면 가고 싶은 곳은 인도예요. 인도에서 5년 동안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 봤지만 일이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인도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인도라는 나라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⑤ [- 35 -]

- 청소년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시사에 관심을 두고 방송뉴스나 신문을 자세히 꾸준히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언론고시 등의 직접적인 문제는 대학교에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고, 그건 지금부터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먼저 기자라는 직업이 뭔지, 뉴스가 뭔지를 자세히 알고 시사에 흥미를 갖는 시점인 것 같아요.

⑥ [- 36 -]

- 청소년은 어른이 되기 전 단계의 존재이죠. 현재의 청소년들은 존중받을 인격체이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세대이고, 어른들에 비해 세상을 인식하는 시각과 생각이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자유와 인격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⑦ 이재강 기자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고, 큰 꿈을 가지고 국내 언론을 넘어 세계 언론 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언론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민지, 다음블로그 (2012)에서 각색됨

¹ KBS 는 Korean Broadcasting System의 줄임말

² SNS 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